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 및 재발 이후 질병 부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분석

연세대의대 내과 최상환*, 이재훈, 김태일, 김원호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에 국한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혈성 설사와 복통을 주 증상으로 하며 이의 반복적인 호전과 재발을 특징으로 한다.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과 장기적 임상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는 이진 기간의 재발 횟수 및 임상경과만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연자는 1990년 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내원한 20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누적 재발률과 질병 부담지수로 평가한 임상경과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환자의 부담 정도는 질병의 중증도와 증상의 지속기간에 비례하므로 매월 질병의 중증도를 관해는 0점, 경증은 1점, 중등증은 2점, 중증은 3점으로 하여 질병의 재발로부터 2년 간 이의 합을 구하여 질병부담지수로 정의하였고, 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인자, 사회적, 임상 증상, 증상초발로부터 진단까지의 기간과 진단 당시의 나이, 병변의 범위, 임상적 및 내시경적 중증도, 검사실 소견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누적 재발률은 12개월 후 59.7%, 24개월 후 81.6%였고 60개월 후에는 92.4%였다.
 - 2) 진단 당시 나이가 40이하인 환자에서 누적 재발률이 유의하게 높았고($p<0.01$), 진단 당시 발열이 있었던 환자 및 병변의 범위가 S상 결장 이하였던 환자에서는 누적 재발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3) 재발 이후 2년 간 질병부담지수는 진단 당시 발열이 있었던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5$), 진단 당시 나이가 40세 이하였던 환자, 병변의 범위가 S상 결장을 넘었던 환자 및 임상적 중증도가 중등증 이상이었던 환자에서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
 - 4) 그 외에 누적 재발률 및 재발 이후 2년 간 질병부담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없었다.
- 이상의 결과로 젊은 환자 및 진단 당시 발열이 있었던 환자에서 재발률이 높고 재발 이후 임상 경과가 좋지 않으며, 진단 당시 병변의 범위가 넓었던 환자 및 임상적 중증도가 심했던 환자는 상대적으로 재발률이 높지는 않으나 재발 이후의 임상경과가 좋지 않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진단시 임상적 특징과 장기적 예후에 관한 고찰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소화기내과

김영민*, 최옥선, 양석균, 명승재, 손정민, 김태훈, 박영환, 송희곤, 정훈용, 홍원선, 김진호, 민영일

목적: 우리나라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진단시 임상적 특징과 장기적인 예후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서울중앙병원 궤양성 대장염 클리닉에 등록되어 있는 739명의 환자를 가운데 1989년 10월부터 2001년 3월 사이에 서울중앙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한 19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시 임상적 특징, 누적 재발률 및 누적 수술률에 관하여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내시경적 병변의 범위는 직장염, 좌측 결장염 및 광범위 결장염으로 분류하였고, 질병의 활성도는 modified Truelove-Witts 분류를 사용하여 경증, 중등증 및 중증으로 분류하였다. 관해는 하루 배변 횟수가 3회 이하이고 직장 출혈이 없는 경우로, 재발은 치료 강도를 높일 정도의 배변 횟수의 증가 혹은 직장 출혈이 나타난 경우로 각각 정의하였다. 결과: 진단시 환자들의 중간연령은 39세(12-75세)였고, 남녀비는 남자가 86명(45.0%), 여자가 105명(55.0%)이었다. 병변의 범위는 직장염 77예(40.3%), 좌측 결장염 52예(27.2%) 및 광범위 결장염 62예(32.5%)였고, 질병의 활성도는 경증 74예(40.3%), 중등증 72예(37.7%) 및 중증 45예(23.6%)였다. 전체 환자의 중간 추적기간은 28개월(1-138개월)이었고 관해 도달률은 98.4%(188/191)였다. 관해에 도달한 환자의 누적 재발률은 1년 30.1%, 3년 61.6%, 5년 79.8% 7년 90.5%로서 성별, 질병의 활성도 및 병변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19세 이하의 환자군에서, 20-39세의 환자군 또는 40세 이상의 환자군보다 유의하게 재발률이 높았다($p=0.032$). 전체 환자의 누적 수술률은 1년 2.0%, 2년 3.2%, 4년 4.5%였으며, 4년 이후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없었다. 한편 추적 기간중 대장암이 발병하거나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결론: 서울중앙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단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진단시 임상적 특징과 장기적인 누적 재발률은 서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누적 수술률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